

“광주 시민 안전·행복에 집중” “전남의 미래 10대 과제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7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

민선 7기 3년을 넘어선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1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안전과 행복’, ‘새로운 광주 미래’를 여는 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값진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시대를 감내하고 있는 도민에 사의를 표한 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위cker릭’,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광주발전과 시민만 보고 쉽지가 않았고,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철도 2호선, 인공지능, 민간공원특례사업, 공학이전 등 지역의 미래를 걸고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내린 끝에 수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고향 광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고 지난 3년을 회고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우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정치권 등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건설 필요성과 뜻을 전했으나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광주~부산 간 경전철을 예정대로 완공해 우리나라 동서 철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분양·임대 공급도도록 노력했고 분양가와 건설비도 낮췄으니 이제 광주시가 중심을 잡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대표적 장기 미해결 현안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기획재정부 유관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측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으며, 전남·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은 근대문화 유산 보존, 광주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장 등 3가지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소회도 드러냈다.

이 시장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일부 적극행정의 진정성이 외면 받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로 소중한 시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지난 3년의 주요 도정 성과로 전남의 미래 성장 비전 제시(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대거 확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 구축, 농어업 판로 확대 등 10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신안 앞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민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사업 성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전남 100년을 이끌 미래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했다”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전남 예산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마늘, 양파,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해 전남형 가격·수급 안정제를 시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가져온 점도 성과로 보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를 대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 ▲그린 수소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 육성 ▲국립 의과대학 유치,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생명 산업 선도 ▲농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간 산업 혁신클러스터,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 등 어업인이 돈 버는 수산업 육성 ▲환경해권 국가철도망, 전남·광주 광역 고속교통망,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김 지사는 광주시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광주전남은 한뿌리이자 경제 공동체다. 전남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광주도 그 혜택을 가져간다. 광주의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전남이 4차 산업 수혜를 입는다”며 “바이오생명산업,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사·도 역점 프로젝트 가운데, 사·도가 함께 추진할 사업들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 늘린 재개발 조합장 ▶6면

굿모닝 예방 - 싸목싸목 목도 한바퀴 ▶18·19면

KIA ‘협업산중’ ... NC·두산과 6연전 ▶22면



소낙비에 물방울 ‘톡’ 갑작스레 소낙비가 내린 28일.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건널목에서 우산을 쓴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세균·이광재 7월 5일까지 단일화

민주당 대선 레이스 시작 ... 벌써부터 합종연횡 ‘꿈틀’
최문순 후보 등록 ... 오늘 이낙연·내일 이재명 등록할 듯

최문순 강원지사가 28일 첫 번째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빅 3’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30일 후보 등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예비후보 접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후 내달 9~11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고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한다.

〈관련기사 3면〉

대권 레이스의 막이 오르자마자 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합종연횡 변수가 꿈틀대면서 경선 판이 출렁이고 있다.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합종연횡이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국거래소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예비경선(컷오프) 일정을 염두에 둔 ‘컷오프 전 단일화’ 합의다. 일단 개문발차식으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뒤 다른 후보들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반이재명 전선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단일화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선 것이다. 반이재명 공동전선을 통해 이 지사가 독주하는 현재의 판을 흔들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5%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 후보’를 강조하며 도덕적 품격 등을 후보 자질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이 지사 견제와 전문 진영의 지지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인위적 연대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만들어질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후보 간 연대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선투표 과정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 비이재명’ 전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최소 4차례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진행되지 않는다. 강훈식 기획단장은 회의에서 “혁신과 흥행, 2가지가 당면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동적인 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60대, AZ 백신 1차 접종 8일 만에 숨져

방역당국 인과성 조사 나서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지 8일 만에 숨져 경찰과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조사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 30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60대 A씨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오후 7시 5분께 사망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외 특별한 지병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A씨는 메

스꺼움과 구토 증상으로 인해 지난 23일과 26일 2곳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사망에 이ര렀던 지병이 없던 A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보건 당국에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9일 가족 동의를 받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광주시는 중증이상반응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가달립니다
대한민국이달라집니다

광주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완공,
인공지능 광주시대의 개막,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전국 최대 출생률 증가, 국내 최초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으로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더 변화하는 광주의 내일을 기대해주시요!

광주광역시
GWANGJU CITY